

맨더빌(Bernard Mandeville)의 經濟・社會分析과 自然觀에 대한 研究*

金 光 壽**

논 문 초 록 :

맨더빌은 경제학설사의 분류상 중상주의자로서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생산을 중시하고 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차액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국부가 노동자수에 의존한다고 하여 국부를 화폐와 혼동하지는 않았다. 또한 우하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을 상정하였던 맨더빌은 국부증가와 생산활동 촉진을 위해 어린이노동 및 저임금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맨더빌이 오늘날 지속적 관심을 끄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케인스의 선구자로서 거시경제의 순환에서 소비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관념상 악으로 지적되어 온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이 근대사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여 '사악은 공익'이라는 명제를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이슈화했다. 한편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맨더빌은 인간행위가 궁극적으로 자기지향적인 성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유인과 통제수단으로 정부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와 같은 맨더빌의 논지는 세계를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인식했던 그의 비판적인 자연관의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 맨더빌, 자본주의의 도덕적 문제, 정부관과 자연관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B1, B3

I. 序 言

오늘날 주류경제학의 미시경제이론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최선의 세계창출을 수반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이론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논리가 종종 지적된다. 국가의 이익을 촉진한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국가기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세하고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公益추구에 전혀 관심 없이 단지 이기적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마

* 본고에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증권예탁원 조사연구부 팀장

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처럼 사회의 물질적 후생증진에 더욱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국부론』의 강력한 논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¹⁾

그런데 이와 같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와 관련하여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思想家 중의 하나는 네덜란드 태생의 신경과 의사로서 청년시절에 영국에 정착했던 버나드 맨더빌(Bernard Mandeville, 1670-1733)이다. 맨더빌의 저작은 같은 시대의 사상가에게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었을 뿐만이 아니다. 이후에도 문학, 철학,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오늘날의 경제학에도 물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맨더빌은 금세기의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평가되는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에게 중요한 아이디어의 원천을 제공하였던 선구자였다. 이 점은 케인스가 그의 유명한 저서 『일반이론』의 數페이지를 할애하여 전통적으로 미덕으로 간주해 온 절약이나 저축이 자본주의 경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맨더빌의 견해를 인용·승인하는 데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²⁾

맨더빌은 18세기 초에 ‘私惡은 公益’이라는 副題가 달린 『꿀벌의 寓話』(*The Fable of the Bees; or Private Vices, Publick Benefits*, 1714)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우화라는 형식을 통하여 당시 영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에 대하여 풍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진보가 당시의 사상적 풍토와는 달리 善의 결과가 아니라 惡의 결과라고 하여 18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³⁾ 당시에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전통적 사회윤리 및 기독교 윤리는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를 이기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유로 악덕(vices)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⁴⁾ 그는 기독교 윤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1)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바대로,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옹호했다는 점이 그가 ‘자유방임론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미스는 동시에 사법, 국방, 사회,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역할이 요망됨을 지적했다. 김광수(1994), pp.381-400 참조.

2) Keynes(1936), pp.358-362 참조.

3) ‘사악은 공익’이라는 명제로서 근대시민사회의 성격을 요약한 맨더빌의 견해는 18세기 유럽의 사상가 및 철학자에게 주요한 논점을 제공했다고 한다. Hundert(1995), pp.591-592 참조.

4) 시장질서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시장경제 활동의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서창출의 바탕이 되는 자기이익의 추구 자체로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질서가 확산되기 이전 사회에서는 사정이 이와 달랐다. 고대인과 중세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동기에 의해 행하는 경제활동을 사회의 共同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와 중세의 많은 철학자들은 생존을 위한 물질적 필요를 넘어선 개인적 이익추구를 惡德으로 비판

로 엄숙주의(rigorism)를 채택함으로써 철저한 자기부정 또는 극기만을 미덕으로 간주하였으며, 인간의 모든 이기적 욕망은 근원적으로 사악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미덕과 악덕 간에 중간영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맨더빌은 사치와 쾌락에 대한 욕망이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활동에 지속적 자극을 주는 촉매제임을 주장하면서, 악덕이 상업사회의 번영과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근원임을 밝혔다. 이처럼 전통적 사회윤리에 의해 惡으로 치부되던 이기심의 추구가 바로 사회발전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됨을 강조함으로써 맨더빌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후세에 '사악이 공익'이라는 역설적인 명제를 던졌다.⁵⁾

본고는 18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까지 상당히 시사적이고 흥미로운 논의소재를 제공하는 맨더빌의 경제적 분석 및 사회분석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분석과 그의 自然觀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Ⅱ절에서는 맨더빌의 경제사상으로서 중상주의자로서의 면모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다. 사회분석과 관련된 제Ⅲ절에서는 '사악은 공익'이라는 역설적인 명제를 통해 그가 제기했던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맨더빌의 해명을 살펴본다. 제Ⅳ절에서는 맨더빌의 자연관을 고찰하고 그의 경제·사회분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를 기술한다. 서로 대립적인 자연관을 견지한 당시의 도덕감정론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自然觀이 분석방향이나 정책적 시사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본 연구가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하면 다음과 같다. 맨더빌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맨더빌의 經濟思想과 그의 政府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시도해 왔다.⁶⁾ 그리고 본고의 다음 절에서 언급되는 맨더빌의 경제분석은 기존의 연구와 새삼 방향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가 독창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思想家の 세계관 또는 비

했다.(정현식·유임수·김광수, 1997 참조).

5) 『꿀벌의 우화』에 등장하는 다음의 詩 구절은 대표적이다. “다수대중이 하고 있는 가장 나쁜 악덕이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Mandevill, 1924, *The Fable of the Bees*, Vol. 1, p. 24 (이하에서 'Fable I, 24' 등으로 약술함).

6) '경제사상가'로서의 맨더빌을 (일과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루는 논의는 많지 않다. 맨더빌의 철학과 (경제)사상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꿀벌의 우화』의 편집자인 Kaye의 序論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학계의 관심은 주로 그의 경제분석(특히 중상주의적 기본사상과 연관되는 외국무역, 노동정책, 화폐론 등)과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에 집중된다. 이상의 연구문헌에 대해서는 본고의 註 41) 참조. 국내문헌으로는 18세기의 '타락논쟁(corruption debate)'을 중심으로 맨더빌의 사회사상을 다루는 김영한(1995)의 연구가 있다.

전(여기서는 자연관으로 언급되고 있음)이 방법론적인 역할을 하면서 政府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제Ⅲ절 이후에서 맨더빌의 자연관과 人性論 그리고 그의 政府觀을 연계해서 고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점이 맨더빌의 기존 연구에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며, 또한 동시에 맨더빌의 기존 연구에 있어서 대립되는 하나의 해석, 즉 그가 정부의 역할에서 개입주의자 또는 자유방임주의자였는가에 대한 판단에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항임을 밝힌다.

Ⅱ. 맨더빌의 經濟分析

맨더빌은 경제학설사적인 분류상 중상주의자로서 파악되지만 중상주의에서 고전학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의 인물이기도 하다.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맨더빌은 중상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했던 바대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도록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여 외국무역을 규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사회경제활동의 목적을 소비에서 구한 고전학과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맨더빌은 생산에 있다고 보았다.⁸⁾

같은 시대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맨더빌은 國富의 성질과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경제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국부의 성질 및 원인과 관련해서는 연간 생산물의 흐름으로 국부를 파악하였으며 이 점에서는 후일의 고전학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국가의 富가 노동자의 노동에 의하여 창출됨을 강조했다.⁹⁾ 이런 점에서 맨더빌은 국부를 화폐와 혼동하지는 않았다. 또한 맨더빌은, 후일 스미스가 명확히 밝혔던 대로, 상업사회에서 분업의 진전과 유용성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한다.¹⁰⁾ 하지만 그는 국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고전학파와는 달리 공급측의 실물요인이 아니라 총수요측의 화폐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파악하였다.¹¹⁾ 이는 맨더빌이 생산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보다는 생산물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7) *Fable I*, 116, 249, 304.

8) *Fable I*, 317 참조.

9) *Fable I*, 287, 301.

10) *Fable I*, 356-358.

11) *Fable II*, 348-350.

맨더빌의 경제적 주장 중에서 특히 후대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총체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소비역할을 주장한 부분이다. 맨더빌은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미덕으로서 지칭되어 온 절약과 저축이 경제적 침체를 수반하며, 반대로 개인적인 惡으로서 치부되던 사치·낭비 등이 경제적 성장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그러므로 사치와 낭비는 사회적인 선이며, 저축은 사회적인 악이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맨더빌은 인간사회를 벌통(beehive)으로 비유한 寓話的 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惡의 근원인 탐욕, 그 불쾌하고 유해한 악덕이 바로 낭비, 즉 고귀한 죄악을 유인하는 기여자라네. 사치가 수많은 貧者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구역질나는 자만심은 그보다 더 많은 자들을 취업시키고 있네. 시기와 허영은 근로의 독려자이며, 식생활, 가구 및 의상에서의 그 매력적인 어리석은 행위, 변덕, 이 우스꽝스러운 악덕이 바로 交易를 순환시키는 수레바퀴가 되고 있네. (Fable I, 25)

맨더빌은 이 詩 속에서 사회적으로 惡으로서 지탄받는 낭비, 자만심, 허영 등이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고용증대와 원활한 교환행위를 자극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낭비, 허영행위는 사치재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부단히 생산 및 경제활동의 활력소로서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다수대중의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보다 구체적으로 맨더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 계층의 과시적 소비¹³⁾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업사회에서 개개인의 자만심, 허영, 시기심 등을 자극하는 것이 一國의 총수요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치부리는 데 제한이 없이 육감적 만족을 탐닉하는 朝臣, 매주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변덕스러운 매춘부, 장신구·연회, 모든 행동에서 왕비를 모방하려는 거만한 공작부인, 보는 대로 물건을 사고 다음 날 파괴하거나 거저 주면서 판단 없이 돈을 함부로 쓰는 방탕한 상속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충분히 성숙한 고래[leviathan; 상업사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희생물이자 고유의 음식이다.…… 다수의 노동하는 빈곤층에게 정직한 생계를 조달하게 하기 위해……

12) “교역 및 항해의 증가를 원하면서 동시에 사치의 감소를 원하는 것은 모순이다.” *A Letter to Dion*, p.49. 또한 *Fable I*, 356 참조.

13) 이러한 점에서 맨더빌은 미국 제도학파의 창시자인 베블렌(T.Veblen)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疫病과 괴물을 필요로 한다.(Fable I, 355)

만일 사회가 이상과 같은 개인적인 惡德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만일 도덕론자들이 권유하는 것처럼 개인들이 쾌락추구를 억제하고 탐욕 없이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아간다면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맨더빌은 먼저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이 위축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당장 상업사회의 기동인 교역은 거의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사회적·경제적 침체가 곧 닥치게 될 것이다.¹⁴⁾ 1930년대의 케인스를 연상시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과 인구정책에 관한 맨더빌의 견해를 알아보자. 중상주의자들의 무역 및 보호정책은 노동·인구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중상주의자들은 국가가 노동자들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인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한편으로는 공업에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라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렴한 상품이 많이 생산되면 될수록 수출이 증대되어 무역차액이 확대되고 금은의 양(화폐)은 증가할 것이다. 맨더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생산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한다고 보았고, 어린이노동까지도 생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 또한 인구증가로 노동인구의 수가 늘어날 때 임금은 낮아지게 되는데, 저임금이 될수록 노동공급이 추가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맨더빌은 우하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을 상정하고 있었다.¹⁶⁾ 그러므로 생산활동이 촉진되려면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운용이 필요하다.

나는 [국가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빈곤한 노동자들은 일할 유인을 갖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욕구를 완회시키는 것은 신중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치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어업이 모든 부문에서 활성화되어 곡물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Fable I, 248-249)

여기서 노동정책과 관련한 맨더빌의 견해가 명확히 나타난다. 첫째, 맨더빌은

14) Fable I, 26-35.

15) Fable I, 287-289.

16) Fable I, 192-193.

노동인구의 빈곤이 필요하며 빈곤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국부증가를 위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노동자들은 부유해지게 되면 일은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만 빈곤하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맨더빌은 “다수대중은 가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지해야 한다”(Fable I, 288)고 말하면서 노동자 자녀의 교육에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산업에

서 요구되는 적정한 노동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노동자의 빈곤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¹⁷⁾ 둘째로 맨더빌은 곡물생산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식량생산이 충분해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임금은穀價와 正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곡물이 많이 생산된다면 임금은 낮아질 것이다. 맨더빌은 임금이 낮아지면 국가 간의 무역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國富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저임금 유지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¹⁸⁾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맨더빌이 어떠한 견해를 지녔는지를 고찰해 보자. 맨더빌은 다른 중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一國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확고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개입을 위한 개입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근본적으로 주의 깊고 기교적인 통치술을 발휘하는 정부의 배려 없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았다.¹⁹⁾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무역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맨더빌에 따르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법을 집행하는 데에 있다. “개인과 기업이…… 공공의 평화와 후생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Fable II, 321)이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한다. 맨더빌은 『꿀벌의 우화』 서문에서도 “자연의 생물에 영혼과 생명이 필수적이듯이 시민사회에 법과 통치는 절대적인 요소이다”(Fable I, 3)라고 기술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원천적으로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 내지는 처벌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필

17) 고전학파의 견해와 대조적이다. 이를테면, 스미스는 “노동의 임금은 근로를 자극하는 요인이다”(The Wealth of Nations, I.viii.44, p.99)라고 말하면서 고임금이 생산성 향상에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펼친다.

18) Fable I, 248-249, 317.

19) 맨더빌은 이론 ‘보이지 않는 손’을 부인하면서 “전체의 선이 모든 개인의 선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A Letter to Dion, p.45)라고 말한다.

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회를 파괴하는 행동을 억제하거나 처벌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정의가 구현되어야 국가의 안정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는 논지이다.

한편 맨더빌은 정부가 일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완전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다양한 산업지원과 기술촉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농업 및 어업 진흥정책은 식량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지적하고 있다.²⁰⁾ 둘째, 상업과 교역의 활성화도 국부증대를 위한 기본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항해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²¹⁾ 셋째, 맨더빌은 국가번영의 지표를 노동자의 완전고용에서 구하면서 노동자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동에 전념하도록 자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근로소득이 생계유지에 적합한 정도로만 지불되도록 적정한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²²⁾ 넷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특히 운송시설의 확장에 나서는 방안이 성장단계에 있는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이익환수에 장기간의 시간이 요망되는 관계로 개인적 차원의 사업으로는 무시되기 쉽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통해 많은 노동자가 고용되어 국부증진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지니므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²³⁾

Ⅲ. 맨더빌의 社會分析

전절에서 이미 지정한 대로 맨더빌은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과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소비지출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상업사회에서 成長의 인과관계에 대한 맨더빌의 이와 같은 주장이 후대의 경제학자 이외에도 인문학도나 여타 사회과학도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 왔던 이유는 이와 관련하여 그가 제시한 문제의 폭과 깊이가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더

20) *Fable I*, 197, 248-249.

21) *Fable I*, 184.

22) *Fable I*, 193-194.

23) *Fable I*, 318-321.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더빌은 소비를 자극하는 요인이지만 전통적으로는 개인적인 惡으로서 비난받아 온 사치와 낭비 그리고 이러한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는 감정인 허영(vanity), 시기(envy) 또는 자만심(pride)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성장의 촉매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적인 善임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교역활동과 경제성장이 활성화되는 사회에서 개인들의 탐욕과 사치행위도 불가피하게 동반확대되지 않을 수 없음을 언급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역설적인 상황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만더빌이 제시한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문제(moral problem)'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의해 다음처럼 명확하게 서술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는 종종 모든 개별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복리와 대립된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시기라는 원리에 의해 나태와 게으름으로부터 깨어 분발하고 경쟁과 유용한 노동에 박차를 가하게 됨을 목격한다. 탐욕과 자만심이 交易과 勤勞의 주요한 장려자임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聖書가 경고하고 있듯이 이러한 諸惡德 즉 자기이해 추구와 시기·탐욕 등이 바로 관측되고 있는 거의 모든 불평등과 무질서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부정될 수 있는가?²⁴⁾

여기서 만더빌은 전통사회와는 다른 자본주의 사회의 딜레마를 날카롭게 적시하고 있다.²⁵⁾ 목적론적 질서를 중시하던 기존의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추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사회적 理想이 구성원들에 의해 보다 존중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정치적 가치가 사회적 선으로서 행위의 목적이 되었으며, 신분과 직분, 공공이익을 위한 헌신 등이 강조되었다. 반면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한 탐욕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기적 욕구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사회정치질서가 교란되고 공동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세 말기 이후 상업의 발달과 시장경제질서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24) Mandeville(1720), p.12 또한 *Fable I*, 185 참조.

25) Thomas Horne은 스미스도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했다고 지적한다. Horne(1981), p.560, p.565.

기존의 전통적 가치질서체계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근대사회에서 상업과 시장경제질서의 확대는 부의 확대와 경제적 성장을 통해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제고시켰던바, 이는 사익추구에 바탕을 둔 끊임없는 이윤획득 노력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활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질서 중심의 사회가, 마르크스의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 “확연한 이기심과 차가운 현금지불 이외에 인간 간에 어떠한 연계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²⁶⁾로 전화했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사익에 입각한 자유로운 영리추구가 탐욕을 무한히 자극하는 가운데, 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사회윤리가 위협받고,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파괴되며 폭리, 축재, 투기, 배금주의, 불평등심화, 비인간화 등 부정적인 현실상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런데 상기에서 제기된 자본주의의 도덕적 문제의 근본에는 개인적 이익의 추구를 전제로 하는 생존방식이 사회적 질서 내지는 번영과 양립할 수 있으며, 또한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근대사회의 고민과 과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문제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즉 사익과 공익의 양립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맨더빌은 어떠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어떠한 진단을 내리는가를 이하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맨더빌은 인간의 情念(passion)과 慾望(desire) 등 인성(human nature)에 대한 분석을 사회분석의 기초로서 중요시한다. 그런데 맨더빌에게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간의 다양한 정념과 욕망을 이기심의 현시적 표현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²⁷⁾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본래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상태 그대로의 모든 동물은 자신들의 쾌락을 찾는 데만 열중하며, 그들이

26) 마르크스·엔겔스, 『공산당선언』, p.16. 한편 이와 동일한 인식은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 사상가에서 널리 발견된다. 예컨대 사회학의 창시자로서 평가되는 Ferguson(1767), p.169 참고.

27) 이기심(self-interest)의 의미는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맨더빌은 흄스와 마찬가지로 이기심이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動機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시대에 이기심은 물질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좋은 평판에 수반되는 허영이나 자만심의 충족 등 社會學的인 意味를 내포하는 개념이었다. 이기심의 의미가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는 대로 각 경제 주체가 물질적 후생이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합리적·계산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축소된 것은 산업혁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과 물질의 축적이 이루어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기심의 의미 변화와 관련된 思想史的인 논의는 예를 들면 Hirschman(1977), Myers(1983)에서 발견된다.

추구하는 쾌락이 타인에게 선 또는 악을 수반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자연스러
이 그들 자신의 욕망만을 따른다.(Fable I, 41)

물론 맨더빌은 이 時代의 여러 사상가들이 지적했던 바대로 동정·연민·박애
등과 같은 타인지향적인 감정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맨더빌은 타
인지향적인 감정을 ‘비이기적(unselfish)’으로 평가하는 다른 사상가의 견해에 동
의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보통 미덕이라는 것의 존재를 수긍했지만, 그것이 진
정한 미덕이라는 데는 반대했다. 다시 말해 미덕에 대한 순수한 욕구로부터 어떤
사람이 사심 없는 마음으로 公共善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맨더빌은 동시에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마음 뒤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동
기에는 결국 개인의 만족과 결부된 허영과 자만심이 지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代用의 미덕은 진정한 미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는 허영이기 때문이다
.”²⁸⁾ 맨더빌은 이와 같은 점을 다음처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들의 어떠한 나약함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기적 행위)을 자제할 수 있고, 善에 대한 욕구만으로 침묵 가운데 어떤 가
치 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거론했던 사람
들보다는 더욱더 세련된 미덕의 개념을 획득하고 있음을 나는 자인한다. 그러나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서조차 우리는 적지 않은 자만
심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현존하는 어떠한 가장 겸손한 사람조차도 미덕의
보상, 즉 미덕을 한 후에 수반되는 만족이 그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숙고
함에 따라 얻게 되는 쾌락에 있다는 점을 자인해야만 한다.(Fable I, 57)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자. 맨더빌은 사람들이 거리의 거지에게 자선을
베푸는 행위가 타인지향의 심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한 자선행위는
물건을 사고 돈을 치르는 일반적 교환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동정심을 완화하고 ‘마음 편하게 걷기 위하여’ 사람들이
거지에게 돈을 지불하는 행위라고 본다.²⁹⁾ 그러므로 자선행위는 궁극적으로 이기
적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또 다른 한편 외관상으로 행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
는 선행 및 희생적 행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맨더빌은 이처럼 외형

28) Monro(1975), p.235.

29) Fable I, 257-259.

상 드러나지 않는 선행 및 희생적 행위의 근원에는 반대급부로서 타인의 칭찬을 얻으려는 욕구 (또는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의 회피)가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선행이나 희생적 행위에 대해 타인의 칭찬 또는 존경심이 표출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기심의 추구를 억제하면서 선행 및 희생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의 존경을 얻고자 하는 욕구 및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감탄의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느끼는 환희는 (이기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情念의 정복에 대해 지불되는 대가이며, 치욕을 수반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도록 만든다.(Fable I, 68)

그러나 맨더빌이 관찰한 대로 사정이 이러해서 모든 인간행동이 궁극적으로 이기적이라면 홉스가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상태는 萬人の 萬人에 대한 투쟁의 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따라서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정치공동체의 성립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³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기심을 보편적인 인간 심성임과 동시에 인간행위에 가장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천으로 보는 경우에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사회적 응집력이 발생하고 사회의 지속적 존재 및 번영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설명과 관련하여 맨더빌은 이기적인 심성을 지닌 인간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이기적 정념을 억제하기 위해 단순히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법을 집행하고 처벌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분업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기적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들 존재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회통제의 세 번째 방안은 타인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타인에게 선행을 한 사람에게만 사회적 승인과 존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기심이 인간의 시기심(envy)과 자만심(pride)을 자극함으로써 개개인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맨더빌이 강조한 것은 이 세 번째 방안이다. 정치인들이 인성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아첨(flattery)이 이기적인 인간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맨더빌의 논지이다. 즉, 정치인들은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30) Hobbes(1651), chapter 13, pp.186-188 참조.

자만심을 통해 보상받는 반면 타인에 대한 고려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치욕감(shame)을 느낌으로써 처벌되는 방향으로 사회의 도덕규범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통치기술을 발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정치인의 기교적 통치술에 의하여 타인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작용함으로써 원초적인 사회적 윤리가 성립되었다고 한다.³¹⁾ “윤리적 미덕은 자만심을 통하여 아침이 배태한 정치적 자손이다.”(*Fable I*, 51)라는 말은 이와 같은 맨더빌의 의중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이 성립한 도덕규범을 통해 사회통제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기심이 사회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 맨더빌의 주장이다.

IV. 맨더빌의 自然觀과 그 含意

1. 맨더빌의 自然觀

17-18세기의 理神論者(deists)들이 자연의 자애로운 질서와 조화에 대한 믿음을 지녔던 것과는 정반대로 맨더빌은 인간사회를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적이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악과 무질서의 혼돈된 표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思想史家인 스티븐(Leslie Stephen)은 맨더빌에게 자연은 ‘어두운 힘(dark power)’으로써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다.³²⁾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귀결되는 맨더빌의 자연관은 그의 저작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세계를 신중히 관찰하는 경우 지구의 제 요소와 인성의 구조는 “더불어 소름끼치는 악의 무질서를 형성하고 있다”(*Fable I*, 344)고 말한다. 그는 또한 “예술과 경험을 통해 축복으로 전화된다고 입증하지 못한 모든 것은 악이다”(*Fable I*, 345)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어느 다른 사상사가는 맨더빌의 비전(vision)이 세계를 有機體의 거대한 투쟁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맨더빌]이 자연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샤프츠베리 및 이신론자들의 감탄과 승인을 자극시켰던 자애로운 조화와 질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대신에 이러한 세계가 대립적인 정념에 의해 움직이는 유기체들의 거대한 투쟁의 장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³³⁾

31) *Fable I*, 46-47, 51.

32) Stephen(1876), Vol.2, p.39.

33) Skarsten (1954), p.564.

그런데 이와 같은 맨더빌의 비판적인 자연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맨더빌은 이 곳에서 소년기를 보내면서 안센주의(Jansenism)의 신념을 지닌 교육풍토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독교의 한 부류인 안센주의는 프랑스의 知的인 전통으로서 17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종교적 사상이다. 안센주의자들은 자연의 어두운 측면을 본질(nature)로서 간주하였는데, 이러한 종교관이 맨더빌의 자연관 형성의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안센주의의 신학적 입장은 다음처럼 정리된다.

[안센주의자들의] 신학적 관념은 (최초 인간들의) 원죄 이후 모든 인간의 타락, 구원을 달성하기 위한 그들의 무력함, 인간과 神 간의 심원한 분리 및 쇠신하지 못할 자연의 惡 등을 강조했으며, 인간들이 처한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³⁴⁾

안센주의자들은 아담의 원죄 이후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의 죄악과 이에 따른 신과 인간 간에 메울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타락과 비관주의적 관점을 지닌 안센주의적 신학의 영향으로 맨더빌의 자연관은 이른바 ‘어두운 힘’으로써 나타난다. 맨더빌은 인간타락 이전의 자연 원래적 모습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원래 神性的 상태”였다고 언급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이 바뀌어 “모든 요소가 우리의 적이 되었다”(Fable I, 344)라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맨더빌의 종교관과 자연관이 현실의 갈등과 대립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고 이의 근원이 되는 인성의 사악한 요소를 인간 본래적 심성으로 인지토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맨더빌의 自然觀의 含意

본항에서는 이렇듯 ‘어두운 힘’으로서의 자연을 바라보는 맨더빌의 견해가 그의 경제 및 사회분석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맨더빌의 자연관은 人性論과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자연의 성격을 악과 무질서의 장으로 파악하는 자연관의 영향으로 맨더빌은 인간본성이 원래 타락한 속성과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34) Home(1978), p.21.

이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과오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자연적인 심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³⁵⁾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연적(natural)’인 사회성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타락하고 이기적인 정념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수천의 해악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순결함이나 고결함은 존재하지 않는다”(Fable I, 345)고 한다. 다시 말해 개개인의 모든 행위를 내면적으로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맨더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야만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간에 인간, 단순히 타락한 인간이 그에게 주어진 器官을 사용하고, 욕망과 실망의 가장 큰 무절제가 다른 중심을 가질 수 없는 동안에는 그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 의지와 쾌락 간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에 反한 모든 행동은 비자연적·발작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행위 자체에 그런 식으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쾌락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사고는 자유롭고 통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 없이 사회적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Fable I, 348-49)

결국 맨더빌은 인간행위가 어떠한 형태를 띠든 간에 그 유일한 행동동기는 이기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본래적인 욕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기적 쾌락추구에 반하는 모든 행동은 ‘비자발적’ 내지는 ‘발작적’이다. 동시에 인간은 이기적 동기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적·내재적 메커니즘도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맨더빌의 신념이다.

인간의 행동원리에 대한 맨더빌의 인식이 이러하다면 경제부문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그가 정부의 심려 깊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³⁶⁾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경제주체들이 이기적인 욕구에 지배되어 내부적으로 전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가지는 상황이라면 그들 간에 끊임없는 이해의 갈등 및 분쟁이 일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결국

35) Fable I, 286, 345.

36) 이와 같은 인식은 거대한 정부의 기초는 “전적으로 인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축되

홉스가 상정한 공포의 투쟁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주체들의 '내적'인 통제원리가 부재한 가운데 개인의 해방된 이기심을 사회적인 이익으로 전환해 낼 수 있는 기구는 '외적' 강제기관인 정부밖에 없고, 결국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감시자와 집행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개인들의 악덕은 유능한 정치가의 기교적인 통치에 의해서 공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Fable I, 369)는 말에서 집약적으로 함축되어 표현된다. 이 말은 시장기구를 통해 조화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반면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사익과 공익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우리가 앞서 고찰했던 바대로 맨더빌이 국내경제나 국제무역을 위한 대내외정책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했던 주장의 배경이기도 하다.

3. 理神論者들과의 대비

우리는 맨더빌의 자연관이 人性論을 매개로 하여 그의 政府觀에도 영향을 주는 점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이미 기술한 맨더빌의 자연관과 그의 경제·사회분서관이 과거는 그가 중공 비판의 대상으로 여두에 두었던 자연의 자연로운 주한

와 질서를 믿는 이신론자들의 견해와 비교하는 경우 흥미롭다. 18세기의 이신론자들은 신이 창조한 자연과 여기에 존재하는 오묘한 자연법칙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했는데, 스미스가 포함되는 샤프츠베리 학파(Shaftesbury school)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이기심이 인간행위의 강력한 동기 중의 하나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기심과는 전혀 다른 타인지향적 감정의 존재에 관심을 가진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심성에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仁愛心, 道德感覺, 同感 등)에 의해 자발적인 사회질서가 성립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관점 때문에 이들은 사회정의를 집행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맨더빌이 주장하는 바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사익과 공익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사회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견해에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스미스의 관점을 살펴보자. 스미스는 맨더빌과 마찬가지로 분업 및 교환을 특징으로 하는 상업사회에서 각 경제주체는 기존의 인습 및 전

전제로 삼았다. 그리고 맨더빌이 주장했던 것처럼 사회의 평화질서 유지 및 국부를 실현하는 조건으로서 정의의 법과 그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정부의 문제에서도 견해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正義의 법은 시민사회 존립의 기초이므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소유권은 절대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³⁷⁾ 하지만 맨더빌은 인간은 본래 자연적인 사회성이 없으므로 '외적으로' 주어진 정치인의 기교적인 통치술에 의해서만 원초적인 사회윤리가 성립하고 사회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데 반해, 스미스는 외면적 윤리가 아닌 인간의 내재적 메커니즘에 의해 이기심의 사회적 이익으로의 전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서로 극명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스미스는 만인에게 선천적·보편적으로 내재된 도덕감정이 정의의 원리의 기초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가장 강력한 행동동기 중의 하나인 이기심이 적절히 제어됨으로써 자발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질서의 성립과 발전이 실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스미스의 분석은 그의 자연관 또는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 스미스는 신에 의해 창조된 자연의 질서가 현명하게 계획된 목적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調和와 慈愛(benevolence)를 지향하고 있다고 전제한다.³⁸⁾ 그리고 이와 같은 스미스의 자연관은 그의 경제・사회분석이 사회갈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자발적 질서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스미스는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 내지는 쾌락추구를 목표로 하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이기심의 추구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찰자의 동감을 얻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억제하려 한다고 본다. 상업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주체의 윤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의의 법과 함께 분업・교환에 의해 유지되는 시장경제체제의 질서는 객관적 자율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된다. 이와 같이 자발적인 질서형성의 가능성을 가진 경제・사회 시스템에 당연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자연적 자유의 체계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중상주의자들이 주장했던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37) *Fable I*, 3, 249.

38) Kim(1997), pp.312-336.

V. 要約 및 結論

경제학도에게 맨더빌은 단순히 중상주의자로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1714년에 발간한 『꿀벌의 우화』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풍자함으로써 18세기 유럽사회 지성인 계층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고, 20세기 후반인 오늘날에도 유사한 이유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미 살펴본 대로 경제분석의 측면에서는 맨더빌은 여타의 중상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차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호무역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경제활동에서 생산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우하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을 상정하고 있었던 맨더빌은 국부의 증대와 생산규모의 확대를 위해 인구증가와 저임금이 요망되고, 어린이노동도 생산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맨더빌의 견해가 18세기를 거쳐 20세기에도 꾸준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의 단순한 중상주의적 주장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대사회의 존립 및 번영이 전통사회에서 惡으로서 간주하여 비판해 온 사익추구 정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의 분석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악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치와 낭비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善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경제학과 사회철학의 두 부문에서 나름대로의 파장을 미쳐 왔다. 첫째 맨더빌은 경제주체들이 소비를 줄이고 절약을 통해 저축을 증가시킨다면 생산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경제의 침체가 도래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경제학도에게는 거시적인 경제활동 및 순환에서 소비지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케인스는 이와 같은 경제논리가 『일반이론』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음을 밝힘으로써 맨더빌을 그의 직접적인 선구자로서 지적하기도 한 바 있다.

둘째, 맨더빌은 개인적 소비(사치 및 낭비)가 번영의 촉매제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치·낭비의 바탕에 존재하는 탐욕과 허영이 인간 간의 유대관계를 파괴하고 무질서를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富의 성장은 구성원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적인 희생 없이는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맨더빌이 제기한 문제는 작게는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성 문제이지만 원천적으로는 근대 상업사회의 성립·질서원리를 해명하는 과제에 해당한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문제와 질서원리에 대한 맨더빌의 논의는 다음처럼 요약될 수 있다. 상업사회에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회윤리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인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맨더빌이 펼친 견해의 특이성은 이 부분에서, 같은 시대의 주요 사회사상가와와는 달리, 인간이 자연적인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철저히 부정한 사실에 있다. 맨더빌에 의하면 인간행위는 내재적인 숭고한 도덕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에 입각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본래적인 사회성이 없는 가운데 인간의 유일한 행동원리가 이러하다면 사회는 흙스의 자연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맨더빌에게 자발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질서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사적 이익추구에 전념하는 개별 경제주체에 유인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통제하는 기구로서 정부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둔다.

맨더빌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적 역할은 사적인 이익을 공익으로 전환시키도록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을 문명화시키고 정치사회로 이끌려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정념과 욕구, 강점과 약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가장 큰 약점을 공익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해하여야 한다.”(*Fable I*, 208.) 그러므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선행 및 유익한 행동을 촉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파괴적인 행동을 억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보이지 않는 손 대신에 정부의 손에 큰 비중이 두어진다. 정치인의 기교적인 통치에 의하여 사악이 공익으로 전화된다는 맨더빌의 발언은 그의 정부관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미 고찰한 맨더빌의 人性觀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 상기한 맨더빌의 견해는 같은 시대 이신론자의 견해와 비교될 때 흥미롭다. 예를 들어, 스미스의 경우에 이기심이 인간행위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의 하나임을 인정하지만, 이기심의 사회화와 관련한 처방에서 맨더빌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스미스는 정부가 정의의 법을 강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하여 맨더빌과 이견이 없다. 하지만 맨더빌이 정부에 의하여 외적으로 강제된 사회윤리를 지적하는 데 반하여, 스미스는 인간의 심성에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는 메커니즘(동감의 작용)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윤리·도덕질서를 지적한다. 이와 같은 경제주체의 자발적 통제행위와 더불어 정의의 법에 의해 유지되는 시장경제체제는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므로 정부가 경제활

동에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이는 스미스의 정부관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개입이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맨더빌과 스미스가 하나의 동일한 현상(이기심에 입각한 인간의 행동)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심리분석이나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에서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이유는 양자의 자연관(또는 세계관)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³⁹⁾ 맨더빌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과 神 간에 존재하는 메울 수 없는 간격, 자연의 악 및 유기체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장 등을 전제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의 본래적 성격이 기본적으로 갈등과 부조화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스미스는 반대로 세계를 (추상적 차원에서) 신에 의해 설정된 완전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았으며 악의 존재를 부인했다. 이러한 자연관의 차이가 두 사상가의 이론체계 간의 대립⁴⁰⁾ 및 인성관과 정부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야기하는 배경이다.

본 연구를 통해 맨더빌의 경제·사회분석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冒頭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첫째, 자연관과 경제·사회분석과의 연관성이다. 맨더빌의 자연관은 이론체계의 일종의 전제(presupposition)로서 작용하면서 그의 경제·사회분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찰했다. 비판적인 자연관은 인성의 부정적 측면과 이에 따른 정부의 통제를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음을 보았다.

둘째, 자연관과 과학적 분석과의 연관성 탐구를 통해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맨더빌의 정부관에 대한 기존의 대립적 해석에 하나의 해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39) 경험적 세계의 眞僞 여부에 의존하지 않으나 현실세계의 묘사를 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 세계관(또는 과학철학자 간에 지칭되는바 형이상학) 또는 비전은 어떤 범위의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특정 범위의 다른 이론적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과학 이론의 구성에 통제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Watkins(1958), pp.345-356; Agassi(1964), pp.189-211; Popper(1980), p.55; Glass and Johnson(1989) 등 참조.

40) 맨더빌은 스미스가 학파의 일원으로 속하는 샤프츠베리의 이론체계를 자신의 이론체계와 아주 정반대되고 그릇된 설명으로 선언하고 있다. “본서의 앞 부분을 읽은 주의깊은 독자라면 어떠한 두 이론체계도 샤프츠베리와 내 것만큼 정반대일 수 없음을 곧 깨달을 것이다.…… 그 개념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얼마나 동정할 만한 일인가.”(Fable I, 324). 한편 스미스는 맨더빌의 이론체계가 미덕과 악덕에 대한 전통적 구분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사회 및 윤리규범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방탕한 이론체계’로서 지칭하고 있다(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VII.ii.4).

는 점이다. 기존의 해석은 정부역할에 대한 맨더빌의 주장이 자유방임적인지 또는 중상주의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지에 대해 대립하고 있었다.⁴¹⁾ 그런데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맨더빌은 인성의 타락과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 행위를 통제할 자연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이기심에 대한 정치인의 기교적인 통제를 사회질서·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설명했다. 이는 맨더빌 저서의 몇몇 부분에서 관찰되는 시장자유주의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관이 개입주의적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다.

參 考 文 獻

1. 김광수, “아담 스미스와 정부의 역할: 재조명”, 성균관대 『한국경제』, 제21권 제1호, 1994, pp.381-400.
2. 김영한, “Bernard Mandeville의 社會思想”, 서강대 『서강인문논총』, 제4권, 1995, pp.131-155.
3. 마르크스·엔겔스, 『공산당 선언』, 도서출판 새날, 1991.
4. 정현식·유임수·김광수, 『정치경제학과 경제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5. Agassi, J., “The Nature of Scientific Problems and Their Roots in Metaphysics”, in M. Bunge, ed., *The Critical Approach to Science and Philosophy*, New York: Free Press, 1964, pp.189-211.
6. Chalk, A.F., “Mandeville's *Fable of the Bees*: A Reappraisal”, *The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33, No.1, 1966, pp.1-16.
7. Ferguson, A., *Essays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1767),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6.
8. Glass, J.C. and W.Johnson, *Economics: Progression, Stagnation or Degeneration?*,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89.
9. Hayek, F.A., *New Stud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10. Hirschman, A.O.,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rinceton: Princeton

41) Kaye, “Introduction” to *the Fable of the Bees*(1714); Hayek(1978), pp.249-266 등은 맨더빌이 자유방임주의자였음을 강조한다. 반면 Viner, “Introduction” to *A Letter to Dion*(1732); Taylor(1960), pp.37-39; Landreth(1975), pp.193-208 등은 중상주의적 개입주의를 지지했다고 밝힌다. 한편 Chalk(1966), pp.1-16; Rosenberg(1963), pp.183-196 등은 맨더빌의 정부관이 중상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음을 지적한다.

University Press, 1977.

11. Hobbes, T., *Leviathan*(1651), London: Penguin Classics, 1985.
12. Horne, T., *The Social Thought of Bernard Mandeville*, London: Macmillan, 1978.
13. _____, "Envy and Commercial Society", *Political Theory*, Vol.9, 1981, pp.551-569.
14. Hundert, E.J., "Bernard Mandeville and the Enlightenment's Maxims of Modernit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56, No.4, 1995, pp.577-593.
15. Kaye, F.B., "Introduction", to *The Fable of the Bees*(1714).
16.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an, 1936.
17. Kim, Kwangsu, "Adam Smith: Natural Theology and Its Implications for His Method of Social Inquiry", *Review of Social Economy*, Vol.55, No.3, 1997, pp.312-336.
18. Landreth, H., "The Economic Thought of Bernard Mandevill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7, No.2, 1975, pp.193-208.
19. _____, and Colander, D.C., *History of Economic Thought*, Houghton Mifflin: Boston, 1994.
20. Mandeville, B., *The Fable of the Bees*(1714), F.B. Kaye ed., Liberty Classics, 1924.
21. _____, *Free Thought on Religion, the Church and National Happiness*(1720), London.
22. _____, *A Letter to Dion*(1732), Los Angeles: Austrian Reprint Society, 1953.
23. Monro, H., *The Ambivalence of Bernard Mandeville*, Oxford: Clarendon Press, 1975.
24. Myers, M.L., *The Soul of Modern Economic M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83.
25. Popper, K.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London: Unwin Hyman, 1980.

26. Roll, E.,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London: Faber and Faber, 1953.
27. Rosenburg, N., "Mandeville and Laissez-fair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24, 1963, pp.183-196.
28. Skarsten, A.K., "Nature in Mandevill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Vol.53, 1954, pp.562-568.
29. Smith, A.,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1776), Oxford: Clarendon Press, 1976.
30. _____, *The Wealth of Nations*(1759), Oxford: Clarendon Press, 1976.
31. Spiegel, H.W.,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3.
32. Stephen, L., *History of English Thought in the Eighteenth Century*, Vol.2, London: Smith, Elder and Co., 1876.
33. Taylor, O.H.,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New York: McGraw-Hill, 1960.
34. Viner, J., "Introduction", to *A Letter to Dion*(1732).
35. Watkins, J.W.N., "Confirmable and Influential Metaphysics", *Mind*, N.S., Vol.67, 1958, pp.344-365.